

오픈 스페이스와 無爲自然

서울대학교 環境大學院 環境造景學科
교수 黃琪源

허상과 좌절

우리가 현대 도시환경의 질을 가늠함에 있어 어느 도시나 할 것 없이 떠올리는 것은 “人工이 과다한 반면에 自然은 회소하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그러한 현상은 현대도시의 결함을 나타내며, 그 결함을 메우는 비방은 도시에 “오픈 스페이스를 넉넉하게 되찾는 것이다”고 믿어 마지않는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도시 안에 오픈 스페이스를 마련하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대개는 거시적으로 도시를 고공에서 내려다 볼 때, 그 모습을 사진이나 그림으로 그렸을 때 푸르게 보이는 부분, 푸르게 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면, 그렇게 푸른 부분이 넓은 자리를 차지할 뿐 아니라, 길게 끊이지 않게 이어지면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미시적으로는 도시 안에서 살아가고 지나갈 때 나무와 물이 보이고 새가 지저귀는 숲과 들과 강이 많으면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는 늘 만족스럽지 못할 뿐 아니라, 인공을 대변하고 강요하는 이론과 기술과 겨루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綠地”를 쟁취하고자 애쓴다. 하지만 그 녹지도 원생의 자연이기 보다는 길들여진, 부드럽고 예쁜 자연이기를 은근히 바란다.

이러한 이율배반과 좌절의 원인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그 원인은 다름 아닌 자연과 오픈 스페이스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있지 않을까?

오픈 스페이스의 시원과 변용

인간이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으로부터 보호되기를 바라는 본능이다. 하지만 그것을 능동적·적극적으로 성취하고자 함은 문화다. 그 성취의 방향은 위협으로부터 도피하거나, 위협을 쫓아내거나 가두거나 하는 것이며, 방법은 위험과 안전을 시공간적으로 限定하고, 위협을 안전으로 馴致하는 것이다. 인간이 집을 짓고, 정원을 가꾸고, 도시를 만들면서 살아온 것도 그 출발은 이것에 있다.

오픈 스페이스의 시원은 일망무제한 황야에 있기보다는 울울창창한 밀림 속의空地에 있다. 즉 하늘을 볼 수 없을 만큼 나무와 풀이 뻗뻗하고, 맹수와 독충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숲 속에서 전전공공하던 인간의 조상들이 햇빛과 바람을 만끽하면서 한 숨 돌릴 수 있는 공간, 그 안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던 숲의 질푸른 아름다움을 비로소 찬탄할 수 있는 공간, 곱게 깔린 잔디에 누워 꽃과 나비를 가까이 즐길 수 있는 공간, 이것이 바로 오픈 스페이스의 출발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늘을 향해 “열려”있으면서 주위의 사물들이 “둘러싼” 공간이다. 그것은 주변의 폐함에 의해 위요된 공간이고, 주변과의 분절에 의해 한정된 공간이며 위요되고 한정되었기 때문에 그 내부는 개방되고 길들여진 순치된 공간인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 한정하고 순치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開放空地 뿐아니라 집도, 정원도, 그리고 그것들이 모인 도시도 모두 시원적 오픈 스페이스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형태로 보면 숲 속의 공지는塊體(mass)로 둘러싸인 空間(space)이고, 도시는 주변의 공간으로 둘러싸인 圖(figure)와 地(ground), 正(positive)과 否(negative)의 관계에 있지만, 의미로는 모두 오픈 스페이스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시인들이 현실의 질곡인 자연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자연을 쫓아낸 도시를 만들고 자연같은 정원을 꾸미고 오픈 스페이스라고 한 것이나, 현대인들이 현실의 강제인 인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잘라내고 쫓아낸 자연을 다시 불러들여 공원을 만들고 오픈 스페이스라고 한 것이나, 모두 인공과 자연의 공존을 도모하자는 文化에서 비롯한다.

존재와 상태

오늘날 우리가 두루 사용하는 “自然” -nature와 상응하는-은 한편으로는 어떤 “存在”라는 개념을 지시하는 名

詞니, 그것은 좁게는 지구 또는 우주를 그 외연으로 하여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사물의 집합이다. 또 한편으로는 그것은 어떤 “狀態”라는 개념을 지시하는 형용사 - 자연적(natural)이라고 하는 - 이니, 그것은 조물주가 창조한 것으로 보든, 저절로 생성한 것으로 보든간에 어떤 사물들의 태초의 상태가 보존되어 있는 “그대로(原生)”의 상태; 또는 변화하지만 그 요인이 외부에 있지 않고 사물 자체가 능동적으로 결정하는 “스스로(自動)”의 상태; 또는 변화하지만 사람의 손과 의지와는 무관하게 그대로 있거나 스스로 변화하는 다른 사물의 영향을 받은 “저절로(自生)”의 상태를 가리킨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근대시대에는 상태로 보는 자연관이 우세하였지만, 현대에는 서양의 철학과 과학의 영향을 받아 존재로 보는 자연관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즉 자연이라는 것은 어느 사물의 특정한 상태가 아니라, 어느 특정한 상태에 있는 사물, 비인간적이고 물질적 사물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외계를 있는 그대로 두지도 않고, 스스로, 저절로 변화도록 두지도 않으니, 사물로 보는 자연은 회귀할 수 밖에 없다. 그것은 쉽사리 없어지고 변질한다고 보기에 회귀하고, 회귀하기 때문에 방위와 보호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 가치의 전도-과거의 驅逐에서 현대의 保護로 - 와, 태도의 변질 - 과거의 恐怖에서 현대의 禮讚 - 이 오늘날 우리의 도시를 꾸밈에 있어 자연을 끌어들이어 인공을 구축하고자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하지는 노력의 이념적 기반이자, 기술적 바탕이면서 또한 실패와 좌절의 원인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자연을 사물로 보기에, 존재로 보기에 그것을 오픈 스페이스라는 명목하에 다시 길들여 보고자 하는 것이다.

無爲自然

그러므로 우리가 오픈 스페이스를 생각하고 다루는 데에 있어 도움이 되는 것은 老長思想에 연원한 無爲自然의 생각이다. 이때 無爲는 action인 爲에 대응하여 non-action 또는 inactivity로 해석하여 아무것도 하지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는 부정적 입장이 아니며, 사물의 본성에 맞지않는 것을 주장한다든지, 그것들에게 부적당한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비합리적 입장도 아니다. 그것은 爲-사적인 이득을 위해 사물 본래의 원리에 관계없이 사물을 “억지로 강제하는 일”이고, 타자의 권위를 신뢰하는 일-을 하지 않으며, 오히려 만사를 自然的으로, 있는 그대로, 하는 그대로 두어, 그 본성이 만족할 수 있게 하고, 사물의 본래의 특성 및 自然 그대로의 정세, 즉 自然之勢에 따라 힘이 행사되는 것과 같이 理性이 行動을 인도해야 한다는 적극적 입장인 것이다. 그러므로 無爲는 실천되어야 함을 뜻하며, 그것을 실천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과학적 관찰에 의하여 自然을 본보기로 삼아 그것으로부터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自然은 nature의 어원인 그리스어어 physis를 라틴어로 번역한 natura가 원래 뜻하던 to be born, 즉 “태어나다”, 사람이나 사물의 고유한 성질이나 본성과 상통한다.

문화로 보는 오픈 스페이스

“文化”를 어떻게 정의하든지 간에 그 본뜻은 自然의 耕作에 있으며, 또 耕作의 목적은 價値의 창출과 증대에 있다. 오픈 스페이스는 原生도 아니고 人工도 아닌 “文化화된 自然”이다. 그것이 도시 안에 있음은 회귀한 원생의 標本을 보존함도 아니고, 저열한 인공에 대한 標準을 설정함도 아니다. 그것은 인공으로부터 탈출하는 해방공간만도 아니고, 명칭하게 열려 있는 개방공간만도 아니다. 그것의 진정한 존재의의는 삶과 삶터의 소외와 마찰을 풀어주고 다시 엮어주는 해탈과 창조의 장소가 되는 데에 있으니, 그저 걸보기에만 열려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므로 자연의 쇼윈도우인 綠地나 가두리 안의 놀이터인 公園만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시의 모든 공간-길, 마당, 광장 등-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떻게 그 가치를 구현하는가에 달려 있다.

부정적 자연에 대응한 도시와 정원이 상고시대의 오픈 스페이스이었고, 부정적 도시에 대응한 녹지와 공원이 근대시대의 오픈 스페이스이었다면, 최소한 자연을 복돋우고 번다한 인공을 가다듬고 살아야 하는 미래시대의 오픈 스페이스는 “環境을 文化化하고, 文化를 環境化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 실체를 찾고 가꾸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다.